
韓-日 광공업생산지수(IP) 연례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4. 12.

목 차

I. 회의 개요	1
II. 회의 일정	3
III. 주요 회의내용	4
의제1 한국-일본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방법과 생산능력 추정	4
의제2 한국 제조업생산 속도지수 개발방안 및 일본의 제조업생산 예측조사 개발 경험 및 작성방법	11
기타 향후 회의 추진방향 논의 및 자료수집 내용	18
IV. 시사점	19
[붙임]	
1. 회의록	21
2. 참가자 사진	48
3. 경제산업성 Facebook	49
4. 한국측 발표자료(별첨)	
5. 일본측 발표자료(별첨)	
6. 질문지 2개(별첨)	

I. 회의 개요

1. 회의 명

- 한-일 광공업생산지수(IIP) 연례회의
 - 출장명: 한-일 제조업생산속보지수 및 가동률 관련 통계 협력 회의 참가

2. 회의 일자 및 장소

- 일자 : 2014. 11. 5.(수) ~ 11. 7.(금)
- 장소 : 일본 경제산업성(도쿄) 회의실

3. 개최배경 및 회의목적

- 개최배경
 - 현재 개발 중인 ‘제조업생산 속보지수’와 ‘기업규모별 가동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한국(통계청)측에서 회의 제안('14.9.)
 - . 일본에서 개발하여 공표 중인 ‘제조업생산예측조사’(경제산업성) 사례와 생산능력 조사가 안 되는 품목 및 사업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생산능력 추정 등에 대한 토의가 필요

◇ 일본 제조업생산예측조사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현상 파악과 함께 장래 전망 파악이 필요하여 예측적 판단 관련 지표작성 요청에 대응하여 IIP와는 별도로 기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971년 3월부터 매월 통계작성.공표

- 회의목적
 - 한국의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개발 방안, 일본의 제조업생산 예측조사 개발경험 및 작성방법, 한국-일본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 방법과 생산능력 추정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

<참고> 한-일 양 기관 통계협력회의 현황

- 한국 통계청(산업동향과)과 일본 경제산업성(경제분석실)은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총 7회 회의 실시

시기	장소	회의 주제	출장자
'11.11월	한국 통계청	한-일 IIP 전문가회의('12.3월) 개최를 위한 실무자 회의	<경제분석실> Noriyuki Seshimo 사무관 외 2명
'12. 3월	한국 통계청	제1차 한-일 IIP 전문가 회의 (계절조정 시 동일본 대지진 특이치 처리방안 등)	<경제분석실> Yoshiyuki Sugiura 실장 외 4명
'12.10월	일본 경제산업성	제2차 한-일 IIP 전문가 회의 (연쇄지수, 출하내역별지수 등)	<산업동향과> 전백근 과장 외 3명
'13. 8월	일본 경제산업성	한-일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관련 회의	<산업동향과> 김희종 사무관 외 1명
'13.12월	한국 통계청	한-일 IIP 사전 실무자회의	<경제분석실> Noriyuki Seshimo 부실장 외 2명
'14. 3월	한국 통계청	광공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 관련 한-일 전문가회의	<경제분석실> Yasushi ISHIZUKA 실장 외 4명
'14.11월	일본 경제산업성	한-일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및 가동률 관련 회의	<산업동향과> 이복현 사무관 외 1명

4. 참가자

- 한국 통계청 :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 2명
 - 이복현 사무관, 이재열 주무관
 - ※ 통역(한-일) : Ms. Youngi EOM (엄영이)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조사통계부 경제분석실 6명
 - Mr. Yasushi ISHIZUKA 경제분석실 실장
 - Ms. Atsuko YOSHIDA 경제분석실 계장
 - Mr. Yoshio KINOSHITA 경제분석실 계장
 - Ms. Mayumi FUJIOKA 경제분석실 계장
 - Mr. Tami OHMORI 경제분석실 계장
 - Ms. Akane HASHIZUME 경제분석실 실무자

5. 토의 진행

- < 1차회의 > 2014.11.5.(수), 생산능력 및 가동률
 - 발표1(이복현): 한국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방법과 최근과제
 - 발표2(HASHIZUME): 일본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
- < 2차회의 > 2014.11.6.(목),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및 예측지수
 - 발표1(이재열): 한국의 제조업 생산 속보지수 개발 방안
 - 발표2(FUJIOKA): 일본의 제조업 생산 예측지수

II. 회의 일정

일시		일정	시간	비고
11.5. (수)	14:00-14:10	인사말(일본, 한국)	10분	· Mr. Yasushi ISHIZUKA 실장 · 이복현 사무관
	14:10-15:10	과제 발표(한국) 및 질의응답	60분	· 한국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 방법과 최근과제 (이복현)
	15:10-15:20	휴식	10분	
	15:20-16:20	과제 발표(일본) 및 질의응답	60분	·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 (Ms. Akane HASHIZUME)
	16:20-17:00	추가 토의	40분	· 일본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 중심으로 추가 토의 진행
11.6. (목)	14:00-15:00	과제 발표(한국) 및 질의응답	60분	· 제조업 생산 속보지수 개발 방안 (이재열)
	15:00-15:10	휴식	10분	
	15:10-16:10	과제 발표(일본) 및 질의응답	60분	· 제조업 생산 예측지수 (Ms. Mayumi FUJIOKA)
	16:10-17:00	추가 토의, 종합토론	50분	· 일본의 제조업 생산 예측조사 중 심으로 추가 토의 진행 · 한일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종합토론
11.7. (금)	참고자료 수집			· 속보지수, 생산능력 및 가동률 관련 자료 · 일본의 지수작성 관련 책자

Ⅲ. 주요 회의내용

의제1

한국-일본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방법과 생산능력 추정

1. 생산능력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 측정방법

- 일본의 제조업 생산능력 품목 160개는 제조업의 생산실적 조사대상 품목 전체 몇 개 중 몇 개를 포괄하며 품목의 대표도는 몇 퍼센트인가?
- 그동안 지수개편을 하면서 능력조사 품목수가 증가하다가 ('95년 기준까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생산능력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자동차 부품도 생산능력을 조사 또는 추정하는 품목이 있는가?

- 일본의 생산능력조사 품목 160개는 광공업생산지수(IIP)의 생산실적 품목 202개와 매치되며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46%를 포괄.
 - 능력지수 커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레인지 등 일부 품목은 IIP에서 조사하지 않는 품목이지만 생산능력조사를 위한 품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최근에(2000년 기준부터) 생산능력조사 품목수가 감소하는 것은 광공업생산지수(IIP) 품목 자체가 축소된데 따른 영향.
- 일본은 조사거부 등 통계조사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10년 전에 가동률을 직접 파악, 와튼스쿨방식 도입, 노무조사에 의한 가동률 산정방법 등을 검토했는데 도입하지는 않았음.
- 일본에서 자동차부품의 생산능력은 산정하지 않고 있음.

2. 생산능력 추정방법에 대하여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 및 어려움

-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생산능력추정에 대하여 일본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일본에서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없음.
- 조사환경 악화로 10년 전에 와튼스쿨방식처럼 광공업생산지수의 생산실적에 대해 생산능력을 추계하여 가동률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현재 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도입하지 않았음.
 - 생산실적으로부터 추계하여 가동률을 작성하는 방식보다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을 각각 추출하여 계산하는 것이 자료로 보았을 때 더 정확했으나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아직 있음.
- 당시 일본에서는 모든 품목을 와튼스쿨방식으로 바꾸었을 경우를 검증한 것이었고, 한국처럼 일부 품목이라도 와튼스쿨방식을 통해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 10년 전부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왔으며 향후 추정을 통한 생산능력 산정방법 활용에 대한 가능성은 있음.
- 그리고 한국은 생산능력 조사가 안 될 경우 가동률을 조사하지만 일본은 사업체에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 가동률 조사가 어려움.
- 따라서 와튼스쿨방식이 아니라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능력을 추정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3. 사업체 가동률 조사에 대한 시도 및 어려움

- 일본에서 사업체의 가동률을 직접 파악하는 방식을 시도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사업체 가동률과 같은 내용인가?
- 사업체의 가동률을 조사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 일본에서 시도한 사업체의 가동률 직접 파악 방식과 한국의 사업체 가동률 조사는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다름.
 - 그동안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으로 가동률을 파악해 왔는데 일본은 과거의 라인 방식에서 셀 방식으로 제조방식이 변하여 생산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음.
 - 그래서 사업체의 가동률을 직접 파악하면 어떨까하고 10년쯤 전에 시도했으나 잘 안되었음.
- 일본은 사업체에서 조사원 방문을 거부하는 등 응답을 해주지 않아 사업체 가동률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4. 기업규모별 통계 작성 현황 및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기준

-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 작성 현황 및 부서는?
- 기업규모별 가동률 작성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이 있는가?
- 기업규모별 통계의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기준은?

- 중소기업청에서 광공업생산지수(IIP)의 기업규모별 업종별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업종별 공표.
 - .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미공표.

- 향후 기업규모별 가동률 작성 계획이 없으며 현재는 수요도 없고, 가동률 통계를 전체적인 규모로 만들어도 현재 커버율이 46% 밖에 안 되어 더 세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 과거에도 기업규모별 가동률 작성을 추진한 적은 없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하는 중소기업이고 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

5. 시도별(지역별) 가동률 작성 추진경험 유무

- 시도별(지역별) 가동률 작성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 시도별(지역별) 가동률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 시도별(지역별) 가동률지수 작성을 추진한 적은 없음.
-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 가동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전국도 커버율이 46% 밖에 안 되어 현실적으로 작성이 곤란함.

6.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에 대한 처리 방법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 불응 사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일본은 생산능력조사의 조사표 회수율이 94%이며 불응 사업체도 많음.

- 불응 사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부과한 적은 없으며, 경제산업성 본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일부 대기업은 과태료를 납부할지언정 통계조사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7.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상 어려움 및 통계 이용자들 반응

- 생산능력 및 가동률과 관련하여 통계 작성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통계문의 등 관심도가 높은가?

- 커버율이 46% 정도이고 광공업생산지수(IIP)와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동률을 IIP와 셋트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동률의 정밀도를 높여야하는 과제가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방식을 일본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가동률 조사는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이 많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듦)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자료 공표시 이용자들이 광공업생산지수(IIP)처럼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으나 일부 매니아 층에서 질문을 하기는 함.
- 경제산업성 경제해석실의 FACEBOOK이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공개.

8. 평균가동률을 작성여부 및 실가동률을 작성상 어려움과 공표 문제

- 평균가동률을 작성하고 있는가?
- 실가동률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 실가동률에 대하여 시계열을 고려하는가?

- 일본에서 평균가동률은 작성하지 않으며 실가동률을 작성함.
-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실가동률을 공표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응답자와의 비공표 약속 및 비정상적인 가동률 수준의 품목이 있어 업종 수준에서의 공표는 불가능.
 - 일부 품목은 생산동태통계조사 품목 확충시 비공표를 조건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있으며, 능력산정식 등의 문제로 실가동률이 항상 100을 넘거나 극단적으로 낮은 품목이 나타남.
 - 업종별 가동률을 작성하고는 있으나 공표는 안하고 있음.
- 어느 정도 종합한 수준에서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년의 제조공업, 제조공업(기계공업 제외), 기계공업의 3업종에 한해 실가동률을 공표하고 있음.
 - 기준시 실가동률에 비교시 가동률지수를 곱하여 실가동률의 대략적인 기준을 얻을 수 있으나 기준년에서 멀어지면 괴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3개 업종 기준년 실가동률의 시계열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년 실가동률에 비교시 가동률지수를 곱한 숫자를 공표하지는 않고 이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사용함.

9. 기타 논의사항

- 품목별 가동률지수를 공표하고 있는가?
- 경제해석실의 생산능력 담당자는 몇 명인가?
- 표준생산능력 작성시 표준적인 시간과 일수가 정해져 있는가?
- 품목별 생산능력 산정기준 재검토 주기 등?
- 일본에서 한국 자료에 관심을 보였던 내용?

- 품목별 가동률지수는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경제해석실에서 생산능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명임.
- 생산능력을 작성하면서 표준상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준상태는 각 사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 품목별 생산능력 산정기준 재검토의 명시적인 주기는 없고 사업체의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하며 일반적으로 연말에 검토하여 익년 1월부터 적용.
- 생산능력이 월별로 급등락하면 안되므로 부득이하게 장비점검,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월간 조업일수를 사용하고 이 경우 적절한 개별 대응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한국의 자료에 대하여 사업체 가동률 조사, 와튼스쿨방식의 일부 적용 및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음.

의제2

한국 제조업생산 속도지수 개발 방안 및 일본의 제조업 생산 예측조사 개발 경험 및 작성방법

1. 일본 제조업생산예측조사 회수율 및 대상처 관리

- METI 홈페이지에 의하면, 생산동태통계조사의 회수율은 94%인 반면,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회수율은 100%로 되어 있음. 예측 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회수율이 더 높은 이유.
 - 회수율이 처음부터 100%였는지?
 - 기한(매월 10일)내에 회수가 안 되는 조사 대상처 처리?

○ 조사마감 시점까지의 회수율은 20~40% 정도임. 이후 응답 독려 등을 통해 최종 94.5% 정도까지 끌어 올림.

- 중순쯤 독촉장(e-mail, fax)을 보내면 80%를 조금 상회하고, 그 이후 전화로 요청하여 94.5%에 도달.(100%는 잘못된 정보)
- 기업의 담당자가 바뀌는 시기에 맞춰 응답협조를 구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서 직접 만나고 있음. 매년 초에 응답이 어렵다고 하는 기업이 많음. 이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설득.
- 맨 처음 조사대상 선정 때부터 불응한 기업은 제외하여 대체 기업을 선정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응답한 경우는 그 데이터를 유지(계절 조정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아울러 응답률 제고를 위해 꾸준히 협조를 구함.(전화 등)
- 94.5% 중에 온라인(66~67% 정도) 회수를 제외한 33~34%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회수됨. 업체에서 이메일로 회신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우편으로 다시 보내줌.(이메일은 온라인에 안 들어감)

2.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별도 조사 실시 이유 및 조사단위

- 제조업생산예측조사를 처음 기획할 때, 생산동태통계조사내에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생산동태통계조사의 품목 및 사업체와 똑 같은 품목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조사로 품목과 사업체(기업)도 축소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한 주된 이유?
- 조사단위를 생산동태통계조사와 달리 기업 단위로 추진한 이유와 조사단위에 일부 예외로 한 이유?

- 일본도 처음에는 IIP 조사표에 예측조사 항목을 함께 넣어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조사업체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생산계획을 요구하다 보니 응답을 받기가 어려웠음.
- 일본의 경우 IIP 조사표가 업종별로 다 다르다는 점과 일률적으로 예측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업체에서 생산계획은 거의 제공을 안 함.
- 이러한 사유로 예측조사 때문에 기존의 조사를 거부(일본은 쓰고 싶지 않은 조사항목이 있으면 조사자체를 거부함)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생산계획을 본사에서 잡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로 조사(일부 예외 있음)하게 되었음.(IIP와 조사단위도 다름)
 - (기업단위 조사의 예외) 화학업종 같은 경우, 본사에서 다 취합하여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회사 측에서 부문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본사가 아닌 개별 사업체별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이런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의하여 입력)
- ※ 조사대상 기업은 각 조사 품목의 생산량 상위로부터 선정하고, 생산량에서 생산동태통계조사 해당품목의 약 80%를 커버하는 기업까지 선정.

3.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품목선정 기준 및 품목 소관 기관

-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조사대상 품목선정 기준은?
- 경제산업성 소관 제조업에 속하는 주요제품과 경제산업성 소관외의 제품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조사대상 품목은 광공업생산지수(IIP)의 업종별 채택 품목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품목 정의는 원칙적으로 IIP와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통합하더라도 동향에 문제가 없을 경우 IIP 몇 가지 품목을 통합하여 1개 품목으로 선정.
 - (품목선정기준) 비중이 클 것, 해당 업종별지수와 상관계수가 높을 것, 불규칙변동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점유율이 큰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 특히 신규 조사품목의 경우 대상 기업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을 것(10개 이하 원칙) 등을 고려.
 - 백라이트 품목이 IIP에는 없는데 예측지수에는 있는 등 다른 품목도 있고, 오토바이 등에서는 품목 정의가 다른 부분도 있음.
- 행정적으로 경제산업성 소관 산업이 정해져 있어 제조업에서도 식료품, 선박, 철도차량, 의약품 등은 다른 기관 관할이므로 직접 조사할 수 없음.

<참고> 예측조사 채택 품목

- 채택 품목수(2010기준) : 195개 품목.
- IIP가 2010년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IIP에 준해 품목 재검토 실시.

기준년	공표 시기	품목수
1969년	1971년 3월	82
"	1972년 4월	83
"	1973년 4월	84
1970년	1974년 1월	93
1975년	1979년 4월	114
1980년	1983년 3월	115
"	1984년 1월	133
1985년	1989년 1월	141
1990년	1996년 5월	150
1995년	1999년 4월	180
2000년	2003년 4월	181
2005년	2008년 4월	195
2010년	2013년 6월	195

※「공표 시기」란 채용품목을 변경한 시기. 기준 개정이 실시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4.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

-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히비야정보통신’의 성격은 무엇인가?
- 외부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일은 무엇인가?

- ‘(주)히비야정보통신’은 예전에 외주를 주던 업체였고, 현재는 입찰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조사표 입력만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조사표 배포.조사 독려.결과자료 수집 등은 모두 경제산업성의 공무원이 수행.

5. 조사 결과자료 응답방식

- 조사결과 회수시 응답자로부터 수치를 직접 받는 경우가 100%인가? 아니면 응답자로부터 전월대비 증감률 등 간접적인 수치를 받아 조사자가 생산량 예측치를 산출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가?
- 응답자가 월초의 계획 생산량을 그대로 응답하는지, 아니면 월중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예측 자료를 주는가?

- 수치 데이터를 직접 받고 있음. 증감률 등을 받아 환산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없음.

- 예전에는 전월대비 증감률 등을 통해 예측한 적이 있음.

- 기업에서는 데이터만 들어오며, 지난달 숫자가 당월 10일에 들어오므로 지난달 계획생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쫓아 매달 수정됨.

<참고> 조사표 제출

- 매월 10일까지 경제산업성(경제해석실)으로 직접 우편송부 또는 정부통계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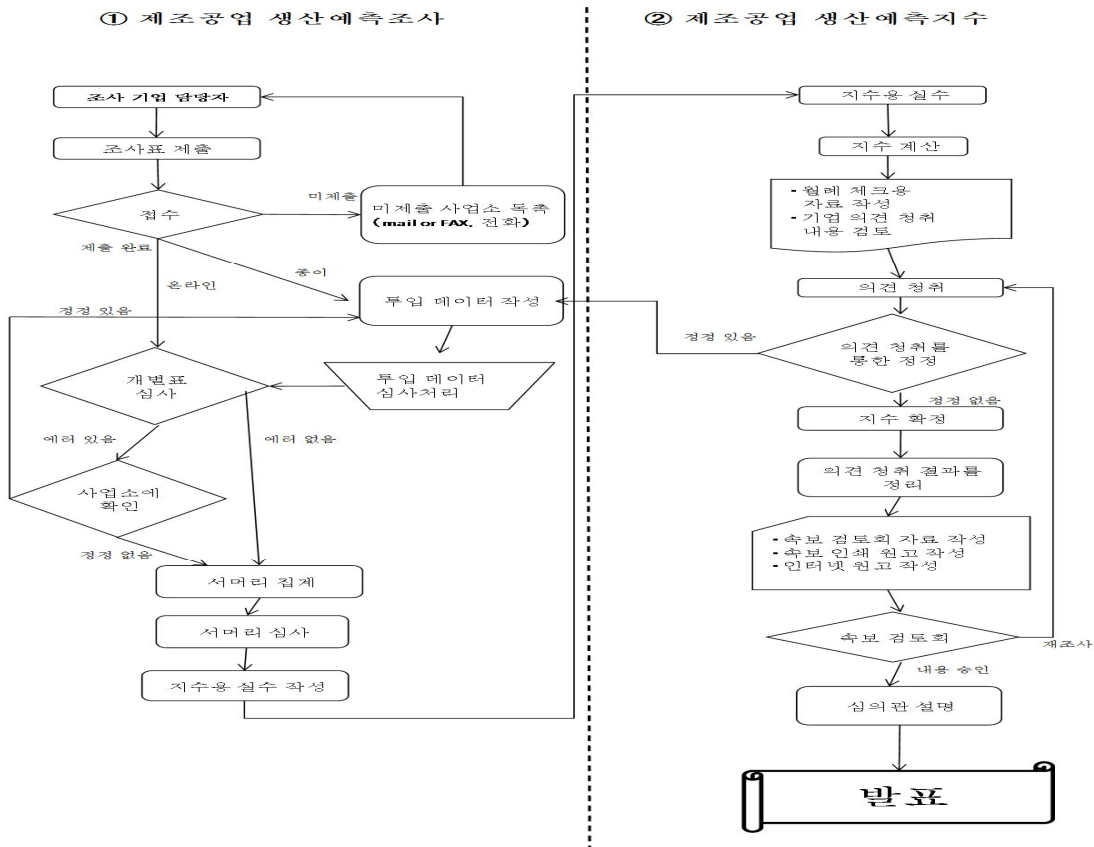
6. 조사결과 집계 및 내용검토

-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 수집된 자료를 100% 이용하는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결과자료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지?

- 예측조사 관련 내용검토는 경제분석실 업무담당자 혼자서 처리.
- 자료 검증시, 전화로는 솔직히 말을 안 하거나 주변상황에 따라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 전자메일로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면 다시 수정하여 보내줌.
- 데이터 '조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데이터 수정은 반드시 기업 측에서 수정을 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함.

<월례작업 흐름도>

3. 월례 처리 흐름



7. 예측지수 공표와 언론의 반응 및 대응

- 예측지수의 공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예측치와 실적치간 괴리, 즉 오차율이 큰 경우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은?
-
- IIP 속보와 동시에 ‘제조공업 생산예측조사결과’로 속보책자 및 인터넷으로 제조업 및 각 공표 업종분류의 지수(원지수, 계절조정지수), 전월비, 동월비, 실현율 및 예측수정률을 공표.(8:50)
 - '01.5.조사부터 지수 공표, 그 이전은 전월비, 실현율, 예측수정율만 공표.
 - 조사대상 기업수, 조사 품목명 등 전부 공표안함.
 - 예측지수와 IIP지수가 다른 경우 언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없었으며 질문에 대해서만 구두로 설명.
 - 상위 대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변동이 큰 경우도 많고, IIP와 대상품목 및 품목정의를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음.
 - 일부 애널리스트 등 마니아 층 정도만 보도 이후 문의가 오고 있는 정도이며 언론 등에서도 큰 관심은 없음.

8. 예측조사의 예산 및 인력

- 제조업생산예측조사와 관련한 연간 예산규모?
 - 경제산업성에서 제조업생산예측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
- 예산은 조사표 등 인쇄비, 우편 발송료 등으로 몇 십만엔 정도임.
 - 경제분석실의 업무 담당자는 1명임.

9. 관세청 수출자료 활용에 대한 의견

◦ 한국 통계청은 1~20일까지의 관세청 수출 자료를 받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출부분이라도 알면 추계가 용이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가 쉬울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매일 나오지 않고 월 1회 전월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어, 예측조사 작업을 할 시기에는 관세청 자료가 나오지 않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임.

10. 기타 논의사항

◦ 본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 통계청이 본사를 조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조언할 부분은?
◦ IIP 해당 품목의 80%까지 커버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 일본은 직접 본사에 바로 접촉하지 않고 협회를 먼저 설득함. 협회를 설득하여 수락하면 대부분 기업이 응답해주는데 그래도 안 해주면 직접 방문하여 설득함.
- IIP 대비 49.8%를 커버하고 있음. 채택품목이 IIP가 487개인데 예측조사는 195개로 이것이 부가가치 기준 49.8% 정도됨. 예측조사 195개 품목은 각 품목 1개가 IIP의 80%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음.

기타 향후 회의 추진방향 논의 및 자료수집 내용

1. 한-일 광공업지수 관련 통계협력회의 향후 추진방향

-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 모두 향후 일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음

2. 참고자료 수집 목록

- 경기를 읽는 통계분석 사례와 방법(입문편)
 - 경제산업성 신규직원용 교재로 활용
- 경기를 읽는 통계지표
 - 경제산업성 신규직원용 교재로 활용
- 지수의 작성과 이용(제5版)
- 기간통계조사(基幹統計調査) 조사표집
 - 광공업동태, 구조통계 관련 조사표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 요령(응답자용)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표
- 정부통계온라인조사시스템 안내 리플렛

IV. 시사점

1. 기업규모별 가동률 개발 관련

- 현재 기업규모별 가동률을 개발하면서 당면한 문제인 생산능력 추정, 사업체 가동률 자료 정확성 제고 및 가동률 공표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일본에서 와튼스쿨방식 능력추정, 사업체의 가동률 조사 등을 10년 전에 검토했으나 도입하지는 않은 점과 실가동률 공표 관련 그들의 태도 등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생산 속도지수 개발 관련

- 현재 우리 청이 당면한 제조업생산속도지수의 조사월 생산실적 항목의 저조한 응답률 문제 해결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제조업생산예측조사에서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e-mail 및 fax 송부, 전화, 응답자가 바뀌는 시점에 출장 방문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응답은 과거자료 활용 등 방법 강구.

<붙임>

1. 회의록 21
2. 참가자 사진 48
3. 경제산업성 Facebook 9
4. 한국측 발표자료(별첨)
5. 일본측 발표자료(별첨)
6. 질문지 2개(별첨)

【 불임1 】 회의록

<1일차 : 2014. 11. 5. 14:00~17:00>

□ 이시즈카 경제분석실장 인사

먼저 멀리 여기까지 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석실의 이시즈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올 3월에 저를 포함하여 꽤 많은 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당시 서비스산업지수라든지 계절조정 부분에 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회의 아젠다인 생산속보지수 및 가동률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쌍방의 고민거리를 기탄없이 오픈 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복현 사무관 인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복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청을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마련하여 주셔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우리 청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회의 일정 등과 관련한 우리 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메일 질의에 대해 친절하고 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현재 기업규모별 가동률 통계와 제조업생산 속보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환경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의 통계작성 경험과 그간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청이 새로 개발하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렇게 귀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생산속보지수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통계인 제조업생산예측조사를 1971년부터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는 귀 기관의 통계개발 경험, 통계작성방법, 사업체 응답률 제고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 습득은 우리 청의 제조업생산속보지수 개발 업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청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규모별 가동률 통계 개발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방법과 최근 과제 및 그간의 고민과 어려웠던 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통계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귀 기관에서 오늘 우리의 발표내용과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많이 조언해 주시면 우리 청이 새로 개발하는 통계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일 상호간 회의 참석자 소개

○ 일본 측 소개

광공업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키노시타입니다.

제조업생산예측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후지오카입니다.

키노시타상을 도와 광공업지수를 하고 있는 오모리입니다.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담당하고 있는 하시즈메입니다.

아까 마중 나간 오토모리상은 10월 달에 입사한 뉴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서적인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요시다 라고 합니다.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제가 영어가 미숙하여 일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 바랍니다.

○ 한국 측 소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업무협력을 해주신 요시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 가겠습니다. 저는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사무관입니다.

저는 제조업생산속보지수 담당을 맡고 있는 이재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의 일정대로 한국측에서 먼저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분석실 요시다)

한국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 통계 작성방법과 최근 과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국측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실시(이복현 사무관)

□ 질의응답

(日) 생산이나 출하, 재고와 완전히 별도로 조사하는 건지?

(韓)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는 기본적으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IIP) 사업체 내에서 3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능력을 조사함.

(日) 포맷(조사표)이 별도로 있는지?

(韓) 별도의 조사표는 아니고 IIP 조사표 안에 함께 들어 있음. (조사표를 보여주면서) 3,400개 사업체는 품목별로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4,000개 사업체는 사업체 단위의 가동률을 조사함.

(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는지?

(韓) 선택사항은 아님. 생산능력 조사대상 품목 314개를 생산하는 사업체 3,400개는 품목별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품목별 생산능력을 조사하지 않는 사업체 4,000개는 사업체 가동률을 조사함. 이때 자체 생산설비가 전혀 없는 사업체는 제외함.

(日) 사업체 가동률 조사는 사업체가 어떤 품목을 만들든지 상관 없는 건지?

(韓) 상관 없음. IIP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더라도 사업체 전체의 가동률을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함. 네 가지 기준은 금액, 설비가동시간, 생산직종사자 투입시간, 기타 임.

(日) 사업체 가동률 산정기준의 생산직종사자 투입시간에서 분모가 항상 24시간 인지 아니면 업체마다 다른지?

(韓) 사업체의 실질적인 MANHOUR, 통상적인 상황에서 생산직종사자의 총 투입 가능시간이므로 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사업체 가동률은 2010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함.

(日) 네 가지 선택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韓) 기본적으로 가동률 산식은 동일함. 생산실적/생산능력의 개념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금액은 “생산능력수량×단가”를 생산 능력액으로 하고 자체설비로 생산한 금액을 생산 실적액으로 함. 설비가동시간 기준은 통상적인 주요생산설비의 총 가동 가능시간을 생산능력으로 간주함. 이 때 통상적인 가동시간은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의미함.

(韓) 설비별로 가동일수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 분자는 주요 설비의 실제 총 가동시간으로 함.

생산직종사자 투입시간 기준은 1개월 동안의 통상적인 생산직 종사자의 MANHOUR대비 실제 투입된 MANHOUR로 계산함.

기타의 방법은 1~3에 해당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임.

(日) 평균가동률이라고 할 때, 일본에서는 실제가동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실제 가동률을 의미하는지?

(韓) 조금 다름. 평균가동률은 계절조정된 가동률지수에 기준년 기준 가동률을 곱하여 산출함. 시계열로 보기 위하여 최초 작성시부터 시계열을 연장하여 보고 있음. 2010년 기준 가동률은 80.53, 2005년 기준 가동률은 79.74임. 그래서 실가동률과 조금 차이가 있음. 한국에서는 실가동률을 공표하지 않고 평균가동률을 공표하고 있음.

(日) 왜 평균가동률만 공표하는지?

(韓) 시계열로 최초부터 본다는 의미가 있음.

(日) 계절조정은 매월 하는 건지? 아니면 일년에 한 번 하는지?

(韓) 매년 2월에 1월 지수를 발표할 때 향후 1년의 계절조정인자를 미리 산출하여 당해년도 계절조정인자로 활용함.

(日) 생산능력 발표 형식은? 제조업 전체로 발표하는지?

(韓) 제조업평균가동률과 제조업 소분류까지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를 발표함.

(日) 채택 품목수 314개의 커버율은?

(韓) 64.1%임.

(日) 597개 품목 중 몇 개를 커버하는지?

(韓) IIP 두 개 품목이 생산능력 1개 품목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314개 품목은 IIP 391개 품목과 매치됨.

(日) 64.1% 커버율의 기준은?

(韓) 2010년 생산액 대비 64.1% 임.

(日) 기업규모별로 가동률 작성 시, 품목별 가중치 기준액을 기업규모별 비율로 분할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할 경우 대기업의 영향이 커서 중소기업의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韓) 부가가치 비율로 분할했을 때 대기업이 69.7%, 중소기업이 30.3% 정도 나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중치를 따로 따로 10,000, 10,000으로 분리하고 있어 서로 영향 받지 않음.

(日) 그러면 IIP도 가중치를 따로 나누어서 하는지?

(韓) IIP도 기업규모별로 가중치가 따로 있음.

일본측 발표자료 발표(하시쥬메)

사전에 한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았는데, 작성방식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았으면 함.

하시쥬메가 미리 준비한 발표자료(한국측에 보내왔던 자료) 발표

□ 질의응답

(韓) 160개 품목이 46%를 포괄한다고 하셨는데, 46%가 품목 수 기준인지?

(日) 부가가치액 기준임.

(韓) 160개 품목이 IIP 품목 몇 개와 매치되는지?

(日) 약 202개와 매치됨. 능력지수 커버율을 높이기 위해 IIP에서 조사하지 않는 품목이 생산능력조사를 위한 품목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韓) 최근 품목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日) 동태조사(IIP) 자체가 품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됨.

(韓) 자료를 보면 와튼스쿨 방식 도입을 검토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日) 10년 전에 검증을 했지만 도입하지는 않았음. 일본은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 조사거부가 많음. 그래서 와튼스쿨 방식처럼 IIP 생산에 대하여 추계하여 가동률을 만드는 방식을 검토해 본적이 있으나,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도가 떨어졌음. 정확성은 현재 방식이 더 좋음. 생산실적으로부터 추계하는 방식보다 능력과 생산을 각각 추출하여 계산하는 것이 데이터로 보았을 때 더 정확했음.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함.

(韓) 한국에서는 수소, 철강선박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와튼스쿨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실적 피크방식으로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최근 생산실적을 직선으로 연결하지는 않고, 생산실적 피크 시를 생산능력으로 하여 유지하고 있다가 더 큰 생산실적 피크가 발생하면 다시 생산능력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17개 품목의 생산능력을 추정함.

(韓) 자동차 부품도 생산능력을 산정하는지? 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능력을 조사하지 못함.

(日) 하고 있지 않음.

(韓) 일본에서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日) 없음.

(韓) 향후에는 추정을 통한 생산능력 산정방법 활용 계획 등이 있는지?

(日) 가능성은 있음. 10년 전부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왔음. 이전에는 전체를 와튼스쿨 방식으로 바꾸었을 경우를 검증한 것이었음. 한국처럼 일부 품목이라도 와튼스쿨 방식을 통해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한국은 생산능력 조사가 안 될 경우 가동률을 조사하지만 일본은 어려움.

(韓) 왜 어려운지?

(日) 업체에서 응답을 해주지 않음. 조사원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韓) 사업체 가동률 조사가 향후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인지?

(日) 앞서 말씀 드렸듯이 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와튼스쿨 방식이 아니라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능력을 추정하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韓) 사업체 가동률을 직접 파악하는 방식을 시도 했다고 했는데? 사업체 가동률 조사와 다른 내용인가? 어떻게 다른지?

(日) 개념은 같지만 조금 다름. 여태까지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으로 가동률을 파악했는데, 일본은 과거의 라인 방식에서 셀 방식으로 제조방식이 변해서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음. 그래서 능력 개념을 통한 가동률 조사가 아닌 가동률을 직접 파악하면 어떨까 하고 10년쯤 전에 시도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음.

(韓) IIP에 기업규모별지수가 있는지?

(日) 있음.

(韓) IIP에 기업규모별 업종별지수도 있는지?

(日)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하고 있음.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지수를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하고 있지만 발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업종별로 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작성은 하고 있지만 공표는 하지 않음.

(韓)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업규모별 가동률 작성 계획이 없는지?

(日) 없음.

(韓) 자료 요구는 없는지?

(日) 현재는 기업규모별 가동률지수에 대한 수요가 없음. 전체적인 규모로 만들어도 커버율이 46%인데 더 세분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함.

(韓)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日)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름.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됨.

(韓) 한국에서도 종사자수 300인 이상, 이하 등으로 구분해 왔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어 어려움이 있음.

(日) 그럼 해마다 오락가락 하는 기업이 있지 않은지?

(韓)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2015년 기준 IIP 및 가동률지수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므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韓) 지역별 가동률지수 작성을 추진하신 적은 없는지?

(日) 없음. 하지만 일부 지역별로 요구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작성이 어려움.

(韓) 조사 불응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日) 회수율은 94%임. 하지만 당연히 불응 업체도 많음.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한 적은 없음. 경제산업성 본부에서 직접 파견 나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음.

(韓) 한국은 최근에 부과한 적이 있음.

(韓) 한국은 확실히 불응 의사를 표시 하였을 때 2회(협조공문 발송, 현지 설득) 설득을 더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응을 하게 되면 본청에 통보하고, 본청에서 자료제출명령 문서를 발송함. 그래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체인지 판단한 후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를 함. 그 이후 최종 거부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함. 자료제출명령을 하면 응답하는 경우도 많음. 최근에 통계청에서 IIP 작성 이외의 다른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적이 있음. IIP에서는 작년에 자료제출명령만 일부 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음.

(日) 불응한 기업명을 공개하는지?

(韓) 공개하지 않음.

(日) 일본의 일부 대기업은 과태료를 납부할지언정 조사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불응하는 기업명 공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함.

(日) 가동률 조사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 하시쥬메상이 말했듯이 커버율이 46% 정도이고 IIP와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황임. 통계활용 시에도 IIP와 같이 세트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정합성 문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 한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韓) 혹시 가동률과 생산능력에 대한 자료를 공표할 때 이용자들의 질문이 많이 있는지?

(日) IIP 처럼 질문이 많지는 않음. 일부 매니아 층에서 질문이 있기는 함.

(日) 경제산업성 경제해석실 FACEBOOK이 있음.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한 해설을 하고 있음.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韓) 기준년 실가동률을 세 개 업종에 대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기준년 가동률에 현재의 가동률지수를 곱하여 직접 계산하여 이용하는 것인지?

(日) 맞음. 실제 숫자를 직접 주지는 않음.

(韓) 지수개편 때마다 실가동률을 발표할 때 시계열을 고려하는지?

(日) 고려하고 있지 않음.

(韓) 인력과 관련하여 경제해석실에서 자료 작성을 혼자 하신다고 했는데, 생산능력과 관련하여 경제해석실에서 혼자 하신다는 뜻인지?

(日) 맞음. 경제해석실에서는 혼자하고 있음.

(韓) 품목별 가동률지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는 품목별 가동률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日) 죄송합니다. 품목별로 발표 가능 여부를 표시한 참고 표를 첨부해 드려야 하는데 누락되었음.

(韓) IIP 품목 이외 품목 중 생산능력조사 품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日) 몇 가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같은 품목은 IIP 품목에 없지만 생산능력조사에는 있는 품목임.

- (韓) 한국 통계청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日) 거꾸로 우리가 조언을 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조사를 통해서만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조사를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 자료 이외의 자료(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 (韓) 그 부분은 내일 주제의 회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음.
- (韓) 내일은 내일의 주제가 있으니, 생산능력 및 가동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여 오늘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日) 생산능력을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韓) 우리가 생산능력 추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업규모별 및 세부업종별 가동률을 만들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기존에는 와튼스쿨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반도체, 철강선박 등 17개 품목에 대해 생산실적 피크방식으로 생산능력을 추정해 왔음. 최근에 사업체 가동률 조사를 하면서 가동률로 생산능력을 추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실적을 가동률로 나누어서 추정하고 있음.

추정된 생산능력의 월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생산실적 피크방식으로도 추정을 해보고 사업체의 생산실적 비중과 가동률을 적용하여 가동률을 작성해본 경우도 있었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고 있는데, 특정사업체의 생산능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이상치에 대하여 생산능력 비율과 생산실적 비율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상치를 조정하고 있음.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가동률 작성에 있어 생산능력 추정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日) 업종별 가동률은 작성하고 계시는지?

(韓) 업종별 가동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임. 업종별 가동률 관련 실가동률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참고하고 있으나 공표는 하지 않고 있음.

- (日) 우리도 만들고는 있으나 공표는 하지 않고 있음.
- (韓) 사실 사업체 단위 가동률 조사로 확대한 근본에는 업종별 가동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작용했음.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日) 능력조사 외에 와튼스쿨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동률 조사를 기본으로 하시는 건지?
- (韓) 17개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실적 피크가 되는 포인트를 생산능력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24개월 사업체 피크를 쓴다든가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日) 능력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사를 하는 것과 와튼스쿨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 (韓)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 등과 적정생산능력 방식으로 측정이 곤란한 것들은 피크 방식을 통해 추정하고 있음. 생산실적 피크 방식도 추정의 한 방법임. 이와 별도로 4,000여 개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 단위의 가동률 조사를 하고 있음.
- (日) 기술 변화가 빠른 품목은 와튼스쿨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 (韓) 맞음.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150톤이 피크인데, 이번 달에는 160톤이 생산되면 160톤을 생산실적 피크로 하여 생산능력을 추정함.
- (韓) 일본에서는 표준생산능력으로 능력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표준적인 생산시간이라던가 조업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별로 달리 적용 하는 건지?
- (日) 일단 표준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마다 다름. 우리가 표준상태에 대한 기준은 제시를 하고 있지만, 각 사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 (韓) 예를 들어 A품목은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 (日) 그렇지 않음.

(韓) 한국은 조업일수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계획된 설비보수, 창립기념일, 공식적인 휴일을 제외한 연간 조업일수(000일)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조업일수를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조업시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설비가 가동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설비가동을 위한 준비시간과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정기적인 잔업시간은 포함하고 있음.

(日)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함.

(韓) 월간 생산능력 산정에 월간 조업일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개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日) 생산능력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므로 표준적인 상태 최대 생산 가능한 양을 표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생산능력 자체가 월별로 급등락을 하면 안됨. 부득이하게 장비점검, 사고 등의 경우는 월간조업일수를 사용하고, 이럴 경우 적절한 개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임.

(韓) 품목별 생산능력 산정기준 재검토는 언제 하시는지?

(日) 명시적인 주기는 없고 사업체의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검토함. 일반적으로는 연말에 검토하여 익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음.

(韓) 오늘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2일차 : 2014. 11. 6. 14:00~17:00>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호간 인사)

그럼 오늘 회의에서도 일정대로 한국측에서 먼저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경제분석실 요시다)

한국의 제조업생산 속보지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국측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실시(이재열 주무관)

한국의 속보지수 개발이 사실은 2012년 이전에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처럼 예측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률이 너무 낮아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일본에서 40년 가까이 예측조사를 통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어떻게 잘 관리해 오셨는지, 응답률 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입니다. 그럼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日) 트랙1~트랙2-1, 2-2까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韓) 트랙1은 응답률이 30% 정도임. 트랙2-1~2-2는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日) 트랙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韓) IIP 조사표에 조사월 생산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 항목을 지난해부터 조사해왔는데 응답률이 아직까지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日) 응답률이 낮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인지?
- (韓) 조사월 생산실적 항목의 응답률이 낮은 상황임. 다른 조사항목은 불응률이 0.1%정도 임. 현재 8,000여개 사업체 중 불응 사업체는 3개 사업체임.
- (日) 10월의 속보지수 조사월 생산실적 마감 기한은?
- (韓) IIP와 동일함. 통상 매월 20일에 조사를 마감하는데, 당월에 당월실적을 조사하는 조사월 생산실적 항목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덧붙여 설명 드리면 현재 조사월 생산실적 조사 항목을 개선 중에 있음.
- (日) 예측 부분이 1~20일까지의 실적인지?
- (韓) 1~30일까지의 자료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조사를 15일에 할 경우 1~15일까지의 실제 실적에 이후 월말까지의 예측 생산량을 더해 30일까지의 자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음. 이때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체에서 곤란함을 많이 느껴 응답률이 낮은 상황임.
- (日) 트랙2-1에서 관세청의 수출자료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전월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수출이 매월 꾸준히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달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韓) 당월 1~20일까지 수출자료를 당월 25일경에 입수하기 때문에 입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임. 과거에는 전월 수출자료를 받아 활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당월자료를 받고 있음.
- (日) 잘 알겠음.
- (日) 공표를 언제 짤 하실 계획인지?
- (韓) 현재 정해진 것은 없음. 조사자료 입수가 제 때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수 작성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표 시기는 아직 결정 된 바 없음.

(日) 계절조정은?

(韓) 아직 계절조정까지 검토한 바는 없으나, 속보지수가 IIP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계절조정인자 등은 같은 것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됨.

(日) 트랙2-1, 2-2를 적용하는 절차는?

(韓) 원래는 트랙1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트랙2-1, 2-2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트랙1의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트랙1으로 자료수집이 안 되는 경우 트랙2-1, 2-2의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정하는 것임.

(日) 그럼 트랙1으로 안될 경우 자동적으로 트랙2-1 등으로 가는 건지?

(韓) 아직 시스템이 100% 구현된 것은 아님. 응답일 경우 트랙1으로 가고 무응답일 경우 트랙2-1, 2-2로 추정하는 것으로 개발 중임.

(韓) 어떠한 방식이 더 좋을지 검증하고 있는 단계임. 기본적으로 될 수 있으면 트랙1에 주안점을 두고 지수를 만들고, 트랙2-1 등은 보조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임. 또한 트랙1으로 입수된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서도 트랙2-1, 2-2를 사용할 예정임.

(韓) 일본은 예측조사가 별도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IIP조사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될 생산실적을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직 검토 한 바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별도조사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보고 있음.

(日) 일본의 경우는 한국처럼 트랙2-1~2-2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 같음. 손이 많이 가고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음. 그러므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업체별로 어떤 것은 트랙1, 어떤 것은 트랙2-1, 2-2로 고정하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됨. 왜냐하면 이것들이 달라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인.

(日) 한국의 경우 IIP나 속보의 경우 인력운영은?

(韓) 현장조사의 경우 IIP 조사원이 그대로 해당 사업체 조사원 생산실적 조사를 수행. 개발 인력은 본청에서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일본측 발표자료 발표(후지오카)

□ 질의응답

(韓) 한국은 IIP와 같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기존의 전월 실적자료에 대한 전월지수가 나오기 20일, 빠르면 30일 이전에 속보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IIP 지수와 속보지수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두 개의 지수에 차이가 나는지 의심을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日) 일본의 경우도 비슷함. 예측으로 이정도 했는데 그만큼 되지 못했을 때 왜 차이가 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질문이 있음. 그러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없었음.

(日) 상위 대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다 보니 변동이 클 경우도 있고, 식품, 담배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되었으며 IIP와 품목의 정의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형광등의 경우 백라이트가 예측조사에는 포함하나 IIP에서는 제외되었음. 오토바이의 경우 IIP는 125CC이상만 조사하나, 예측조사는 125CC이하도 조사함. 예측조사는 가급적 기업이 응답하기 편하도록 IIP에 비해 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면 됨.

(日) 신문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코멘트가 함께 나가는데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알아서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

(韓) 최종적으로 회수율이 94.5%라고 하셨는데, 회수가 안 되는 불응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日) 불응 기업체 중 영향도가 큰 경우는 직접 나가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음. 장기적으로 계속 불응하거나 시스템을 바꾸어 더 이상 조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정도인데,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조사를 해준다든가 못해주겠다든가 하므로 기업의 담당자가 바뀌는 시기에 맞춰 응답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서 직접 만나고 있음. 또한 매년 초에 더 이상 응답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기업이 많음. 이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음.

(韓) 최종적으로 불응하는 업체가 영향이 큰 기업일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日) 맨 처음 조사대상을 선정할 당시 초기부터 불응을 한 기업체는 제외하고 다른 기업체로 대체하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응답을 한 기업체는 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계절조정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또한 꾸준히 협조를 구하는 활동(전화 등)을 통해 금년에도 3개의 기업체가 추가로 응답하는 등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韓) 조사마감 시점에 20~40% 정도 자료가 접수되고, 중순에 독촉장을 보냈을 때 80%까지 접수되고, 마지막에 전화로 독촉했을 때 94.5%로 자료가 회수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4.5%의 60~70%가 온라인 응답 비율인가?

(日) 맞음. 최종적으로 94.5% 회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임.

(韓) 그럼 최종적으로 우편조사는 몇 % 정도 되는가?

(日) 94.5% 중에서 온라인(66~67% 정도)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한 33~34%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회수됨. 독촉하면 업체에서 우선 이메일로 회신을 하고 나중에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며 이메일은 온라인에 안 들어 감.

(韓) 한국의 IIP 조사는 CASI(응답자가 컴퓨터로 입력하는 시스템)가 58%임.

(日) 여기서 온라인 시스템이라 함은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통계조사 시스템으로 이메일은 포함되지 않음.

(韓) 한국의 CASI와 비슷한 것인지?

(日) 맞음. 온라인으로 응답했던 업체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다시 종이로 우편 조사 하는 경우도 많음.

(韓) 한국도 마찬가지임.

(日)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입력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데이터만 달랑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많음.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입력해 넣고 있음.

(韓) 한국은 IIP 조사와 같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처음 조사할 때 IIP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았는지, 그리고 별도의 조사로 분리한 이유는?

(日) 맨 처음에는 IIP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사 업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생산계획을 요구하다 보니 응답을 받기가 어려웠음.

(日) 일본도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IIP 조사표에 예측 조사 항목을 같이 넣어 조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일본의 경우 IIP 조사표가 업종별로 다 다르다는 점과 일률적으로 예측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그리고 일본에서는 생산계획을 아무도 안 써줌. 한국에서는 속보지수 관련 조사항목을 응답 안 해준다고 했는데, 일본은 쓰고 싶지 않은 조사항목이 있으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안 해주므로 기존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그리고 생산계획을 본사에서 잡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었고, 또한 IIP는 사업체에서 조사하는데(사업체는 생산계획을 모름) 예측조사는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조사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어 별도의 조사로 분리함.

(韓) 일본의 IIP 조사표가 업종별로 이렇게(조사표를 보면서) 많은가요?

(日) 일본은 도시바, 히타찌 등 다양한 업종을 하는 큰 사업체는 매월 IIP 조사표만 100장정도 작성함. 따라서 별도로 조사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음.

- (韓) 한국은 IIP 조사표가 딱 2장임.
- (日) 그것이 좋은 것임. 그럼 조사표 1, 2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 (韓) 조사표2는 선박, 철도차량 등 진척량 조사에 사용함. 장기간에 걸쳐서 생산되는 것을 매월 공정률 진행속도에 따라 조사하는데 사용됨.
- (日) 일본도 진척량에 따라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음.
- (韓) 기업단위 조사를 하면서 일부 예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예외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日) 회수율과 관련된 문제임.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 부문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 본사에서 다 취합해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회사 측에서 부문별로 응답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오는 경우 기업의 부문별인 사업체별로 응답을 받음.
- (韓) 응답자의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는가?
- (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으므로 그렇게 하고 있음. 특히 계획생산 같은 경우 당월실적을 베이스로 다음 달 예측을 만들어야하므로 직전이 아니면 자료가 안 나오고 사장님 결재가 안 나서 자료를 못 내는 경우 전화가 와서 부문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 그런 경우는 좋은 경우이므로 부문별(사업체별)로 자료를 받음. 특히 분기(3월, 6월, 9월)말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장님 결재가 마지막 날까지 안 나오는 경우 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음. 그때 추정치를 내는 방법은 실적이 나온 것은 실적을 반영시키고 다음 분기의 계획 확정 승인이 안 나오면 전분기의 생산계획을 입력한다거나 하는 경우 담당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상의하여 입력하고 있음. 이때 이제까지와는 달리 다음 분기에 변동이 크다고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추정하여 실제와 괴리가 없도록 조율하고 있음

- (韓) 한국에서는 IIP조사 품목 전체를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자료를 보니 품목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와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 (日) 일본의 행정적인 문제임. 경제산업성 소관 산업이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해도 식료품, 선박, 철도차량, 의약품 등은 다른 기관(성)의 소관이어서 직접 조사할 수 없음.
- (韓) 그럼 다른 기관(성)에서 조사한 자료를 행정자료처럼 끌어와 쓰는가?
- (日) 예. 맞음. 예측조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씀.
- (韓) 통계청에서도 자료 공유가 잘 안되었는데 최근에는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많이 가져다가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日) 한국이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음. 일본도 통계법이 새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는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음.
- (韓) 한국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절대 못준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국세청 자료를 가져다가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관세청 자료도 받아다가 속보지수 작성에도 활용하고 있음.
- (日) 일본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음.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음. 일본도 국세청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유를 안 해주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음.
- (韓) 외주를 준다고 되어 있는 주식회사 히비야정보통신은 어떤 회사인지?
- (日)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전의 낡은 정보임. 히비야정보통신은 예전에 외주를 주었던 업체이며 지금은 입찰방식으로 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
- (韓) 조사표 입력만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경제산업성 공무원이 자료수집 등 모든 업무를 하는지?
- (日) 예. 조사표 입력을 외주주고 있음. 그 외 부분은 경제산업성의 담당자인 제가 모두 처리하고 있음. 그 외 외주라면 조사표 및 봉투 인쇄 정도임.

(韓) 자료를 받을 때 직접적인 수치를 주기 곤란하다고하면 수치 외에 증감률만 받아서 역산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없는지?

(日) 데이터만 받고 있음. 예전에는 전월대비 증감률 등을 통해 예측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님.

(韓) 응답자가 계획생산이든 실적이든 자기 기업의 수치를 예측하여 적어 주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日) 예. 기업에서는 데이터만 들어옴.

(韓) 자료 내용 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지방통계청의 자료수집단계에서 1차 내용검토를 하고 2차로 본청에서 타당성 점검 등 내용검토를 하고 있음. 예측조사의 월별 처리흐름도를 보면 자료심사가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지수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조사단계에서는 66명의 인력이 입력된 자료의 증감사유 등을 보고 1차로 점검하는 건가요?

(日) 그렇지 않음. 66명의 인력은 어제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과 관련되고, 예측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 하고 있음. 처음의 조사표 인쇄부터 결과보고까지 모두 제가 혼자서 하고 있음. 따라서 아프면 안 됨.

(韓)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는지?

(日) 근성으로 함. 휴가에 스키 타러 갈 때도 부러지지 않게 완전무장하여 절대 안 다치도록 유의하고 있음.

(韓) 지수단계에서 내용검토를 할 때 비고사항 등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한 다든지 등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日) 이메일이 주된 방식임.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함. 전화로 문의하면 솔직히 말을 안 해주거나 주변상황 등에 따라 확실히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이메일로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음.

- (韓) 일부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통계적 조정을 하시는지?
- (日) 수정은 제가 절대로 하지 않음. 수정할 자료는 기업 측에서 수정을 하여 다시 제출 하도록 함. 대부분 분들이 협조를 구하면 수정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응해줌.
- (韓) 본사에 대하여 처음에 예측조사를 하면서 응답을 협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 통계청이 본사를 조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없는지?
- (日) 일본의 경우 직접 본사에 바로 접촉하지 않고 업계(협회)를 먼저 설득함. 협회를 설득하여 수락을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응답을 해줌. 그래도 협조를 안 해주는 업체의 경우 직접 설득을 위해 출장을 나감.
- (韓) 기업체의 원래 계획생산량이 있고 중간에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변화를 즉시 반영하여 자료를 주는지?
- (日) 월별로 조사를 하므로 지난달 말 자료가 당월 10일에 들어오므로 매월 자료가 수정된다고 보면 됨. 따라서 지난달 말 시점의 생산계획이 이번 달에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것을 쫓아 갈 수 있음.
- (韓) 실현율의 차이와 관련하여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신문기사가 날 경우 해명자료를 쓰는지?
- (日)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는 없음. 공표 시 직접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만 이번 달에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변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함. 그러면 왜 그 업종에서 그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질문이 또 들어오기도 함. 예를 들어 공작기계의 납기가 당겨져서 또는 연기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도 함.

- (韓) 한국 통계청은 1~20일까지의 관세청 자료를 받아 트랙2-1 으로 자료를 추정하여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日) 수출부분이라도 알면 추계가 용이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가 쉬울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매일 나오지 않고 월 1회 전월 자료를 얻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조사 작업을 할 시기에는 관세청 자료가 안 나와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임.
- (韓) 일본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실현율, 예측수정율을 계산하면 원지수에는 변함이 없어도(지난달의 예정대로) 3계열의 계절지수가 다를 경우 계절조정완료지수가 달라져 실현율, 예측수정율은 0.0%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기준에서 3계열 모두 전월 실적의 계절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 (日) 같은 달에 대해서는 같은 계절지수를 사용한다는 의미임. 즉 전월실적, 당월전망, 익월전망이 월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지만 같은 것을 쓴다는 의미임.
- (韓) 예측조사 관련 예산 규모는?
- (日) 인쇄비, 우편료, 외주 입력비, 통신비 정도로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음. 우편료가 제일 많이 들고 전체가 몇 십만엔 정도임.
- (韓) 조사대상 범위에서 생산동태통계조사(IIP) 해당 품목의 80%까지 커버한다고 하였는데 생산물량의 80%라는 의미인지?
- (日) IIP에 대한 커버리지를 말씀드리면 IIP 대비 49.8%를 커버하고 있음. 채택품목이 IIP가 487개인데 예측조사는 195개임. 이것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49.8% 정도됨. 예측조사 195개 품목은 각 품목 1개가 IIP의 80%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음.

- (韓) 이를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음. 혹시 한국 통계청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日) 요즘 일본에서는 종이를 없애고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지? 공표방식을 책자가 아닌 데이터로만 한다면?
- (韓) 한국 통계청도 마찬가지임. 몇 년 전부터 전자책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음.
- (日) 자료 공표에 있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킵니까?
- (韓) 한국에서는 매년 연초에 IIP의 연간 공표 일정(월, 일)을 홈페이지에 등재시킴. 그리고 그것이 성과관리로 되어 있어 제때에 공표했는지 관리를 하고 있음. 그래서 매월 정해진 일자의 오전 8시에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함. 그리고 9시에 기자설명회를 하면 바로 신문에 나옴.
- (日) 일본에서는 홈페이지 및 책자에 공지하고 있음
- (韓) 브리핑 시간이 한국은 9시인데, 일본은 13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는지?
- (日) 속보와 확정 시간의 차이가 다름. IIP 속보와 예측조사는 같이 8시 50분에 공표함. 기자설명회는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실시. 보도자료를 8시 50분 바로 전에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자료는 보지 못하게 하고 시계를 보고 있다가 정확히 8시 50분되면 자료를 보게 함. 그러면 바로 기자가 전화를 막 하고 함. 데이터베이스도 정확히 8시 50분에 같이 공개함.

□ 한일 상호간 마지막 인사말

○ 한국 측 인사(이복현 사무관)

이번에 우리 청을 위하여 이렇게 이틀씩이나 회의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이번에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통계작성방법 및 그간의 통계작성 경험과 노하우 들이 앞으로 우리 청의 통계작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의 양 통계작성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통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우리의 방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귀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일본 측 인사(키노시타 계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한일 상호간 기념사진 촬영

【 불임2 】 참가자 사진



좌측부터 요시다/오모리/이시즈카(실장)/이복현/이재열/기노시타/후지오카/하시쥬메



